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8년 10월

선교편지 제 114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27명의 '군산동부교회' 단기 선교팀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다바오와 디고스 지역을 방문하여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군산동부교회는 이곳에 아직 교회가 없었던 2013년부터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하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을 포함하여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 방문입니다. 매번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귀한 사역들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예년에 비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방문하는 곳곳마다 선교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래 전부터 선교팀이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 온 군산동부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로 후원해 주신 까닭이라 믿습니다.

새벽에 다바오 공항에 도착한 이후, 쉴 틈도 없이 디고스의 가장 열악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주정부 교도소'를 방문하여 약 400여명의 재소자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잘 준비된 현지어로 찬양을 부르고, 워십댄스, 수화, 섹스폰 연주 등으로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산동부교회의 이동만 목사님의 영어 설교와 현지어 통역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교 이후 선교팀 전원이 재소자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산동부교회의 전교인이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 각종 선교품을 재소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서 기쁨을 더 했습니다.

교도소 방문을 마친 후에 디고스예일교회 근방의 마을을 방문하여 축호전도를 하였습니다. 군산동부교회 선교팀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약 200여 가구가 모여사는 까가스와 라따사 마을의 집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또한 선교품을 나누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는 디고스예일교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선교팀은 물론이고 디고스예일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선교팀이 특별 순서로 준비한 다양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고, 디고스 교회의 청년들의 한국어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군산동부교회 이동만 목사님의 설교로 복음을 전파하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군산동부교회의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보내주신 많은 선교품을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참여한 전교우들에게 쌀을, 또한 어린이들에게는 빵과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는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카카 교회는 다바오 지역의 모슬렘들이 모여사는 다바오 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어린이 사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군산동부교회에서 처음 방문하여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선교팀의 방문으로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선교품을 나누는 가운데, 이 지역에 복음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팀의 방문으로 인하여 이곳 바카카 이슬람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뿌려졌으리라 믿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디고스 아팔라야 지역에 있는 아팔라야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선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500여명의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군산동부교회에서 아팔라야 고등학교에 50개의 의자를 기증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매주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쓸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군산 동부교회에서 풍성하게 보내준 선교 물품과 빵과 쥬스등을 학생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선교팀 모두가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를 잃지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성령님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많은 기도와 훈련으로 잘 준비된 군산동부교회 선교팀을 통하여 디고스 지역 선교에 큰 진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이 군산동부교회의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힘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 주신 군산동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팀, 그리고 이동만 목사님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선교지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 보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 52:7)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